

종합

생생 자치 광주시·전남도 간부회의 들여다 보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5기 벽두부터 숨가쁘게 돌아가고있다. 광주시는 강운태 시장이 취임 전부터 쏟아낸 야구장 건설, 상무소각장 이전, 무등산 군부대 이전, 광주공항 국제선 기능회복 문제등 굵직한 이슈들로 전 공직자가 초긴장 상태다. 조직개편에 따른 향후 인사도 초미의 관심사다. 전남도는 박준영 지사의 소신인 영산강 사업 추진이 4대강 사업을 반대

하는 민주당 당론과 예민하게 충돌한데 이어 100일앞으로 다가온 F1그랑프리 경기를 비롯해 여수박람회 지원예산 및 민간투자 확보가 중대 당면과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매주 월요일 오전 준 국장급 이상 간부와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도정의 갈피를 잡는 간부회의를 연다. 회의 참석자들의 중요 발언을 간추린다. <편집자 주>

강 시장 “장애인재활병원 사업비 엉터리”

시민회관 헬고 잔디 심을게 아니라 청소년공간 마련

옛 도청 주변 주거+문화+녹지 공간으로 꾸며 보자

강운태 광주시장은 12일 새벽 6시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불발 유인물 단속을 비롯한 가로 정비 행사에 참여하고 광주전 현장을 둘러본 뒤 오전 8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마라톤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강 시장은 ‘민선 5기 100대 과제 실천계획 조기 수립’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원탁회의 구성방안’ 등을 보고한 기획관리실에 대해 “시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원탁회의에 반드시 시민을 위원으로 초빙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부 각 부처에서 예산안을 결정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국비사업 목록을 작성해 애초 다음주로 예정된 관련 회의의 이면 주로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기초질서 확립 계획’을 보고한 자치행정국에 대해 강 시장은 단계별 추진에 따른 민원 최소화 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 경찰청 및

유관기관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복지국에서 보고한 150병상 규모의 장애인 재활전문병원과 관련 강 시장은 “2~3년 새 물가가 급등한 것도 아닌데 사업비가 최초 27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늘었다”며 “이유는 있었으나 최초 계획이 엉터리라는 것이고, 적당히 해 나중에 늘러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인 만큼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환경녹지국이 지난 1971년 건립된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잔디를 심겠다고 하자 강 시장은 “1988년 순천시장으로 일하면서 어린이공원에 노인회관을 지었더니 노인과 아이들이 어울려 보기 좋았다”며 “노인들의 공간에 청소년 공간을 넣는 것에 대해 연구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도시건축국에서 획일적인 아파트 건립이 아닌 수요자 중심, 민간 건설업체가 아닌 광주시도시공



강운태 광주시장이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 주체의 도심재생에 나서겠다고 하자 강 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옛 도청 주변 1~2곳의 재개발구역을 주거+문화+녹지로 꾸며볼 것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디자인비엔날레와 비엔날레에 대해서는 실제 적용 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위주로 대중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박 지사 “행복마을 제대로 지은거냐” 질타

땅끝 관광호텔 수익성 고려않고 위탁운영 생각하나

슬로시티 2년 반이 됐는데 잠잘 곳이 한군데도 없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공직사회의 안일함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1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도지사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 자리에서다. 박 지사는 이날 구체적 사례까지 제시하며 도정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지사는 우선, 농촌 행복마을 육성을 위한 추진상황과 투자계획 등을 보고받은 뒤 말문을 열었다. 그는 “행복마을에 가 보면 설계도대로 지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더라”면서 “돈만 지원하지 말라. 시·군이든, 모든 누가 감독하느냐”고 질타했다. 박 지사는 또 “행복마을 건설할 때 집마다 사진 찍고 증거를 남겨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안 하면 감사시킵시다”고도 했다.

관광문화국과 관련된 공약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지사는 섬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 “민자 유치가 되지 않으면 일단 공공기관이 주

도하고 나중에 바꾸면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남개발공사의 땅끝 관광 호텔과 관련해서는 “다각적 수익성 확보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쉽게 위탁운영하는 방식만 생각한다”고 질책했다. “완도군 신지 해수욕장 인근에 숙박시설 건립 문제도 (전남개발공사에) 지시했더니 그때야 하더라”면서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갤럭시 아일랜드도 “만들어 놔는데 보고하는 게 없다. 가보지 않으니 그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슬로시티 관광사업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지사는 “(청산도의 경우) 슬로시티로 지정된 지 2년 반이 됐는데 잘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꼬집었다. “언제부터 (숙박시설 건립을) 하라고 했는데, 가만히 놔두니 땅값만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1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도지사 공약 실천계획 보고회’에서 간부들에게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전일업산업 추진 부서도 과학적 분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혼이 났다. 박 지사는 “전일업과 관련된 고용 인구가 몇 명이나”고 묻고 “통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나오자, “그런 것 파악해라. 하나의 산업으로 (연 매출, 고용인원, 장애 효과 등을) 분석해라. 비전 갖고 해야지. 몇 명이 고용돼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되겠다”고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CJ제일제당이 신의도 어민과 공동으로 설립한 신의도 천일염(주)의 천일염 생산시설 전경. 2만4211㎡ 부지에 들어선 이 공장은 갯벌 천일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전남도제광>

신안 세계 최대 갯벌 천일염 공장

2만4211㎡ 부지 연간 2만t까지 생산 시설 갖춰

CJ제일제당·어민 공동 설립 ... 준공검사 신청

신안군 신의도에 세계 최대규모의 갯벌 천일염 공장이 완공됐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이 신의도 어민과 공동으로 설립한 신의도 천일염(주)의 천일염 생산시설을 완공하고 이날 신안군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했다.

신의도 천일염(주)은 CJ제일제당이 지난 1월 신의도 염전을 소유한 어민 83명과 함께 설립한 회사로 CJ가 52%, 어민들이 4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만4211㎡ 부지에 들어선 이 공장은 갯벌 염전에서 채취한 소금을 가공해 천일염 완제품을 연간 2만t까지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는 갯벌 천일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프랑스 유명 소금 브랜드 ‘게랑드’의 전체 생산량 1만5000t

보다 많다. CJ제일제당은 이 시설을 설립하는데 100억원을 투자했으며 준공검사가 나면 시험가동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자사의 천일염 브랜드인 ‘오전 너의 신비’의 제품 7종을 생산할 예정이다.

전병석 CJ제일제당 조미 사업부 부장은 “신안군 갯벌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품질은 세계에서 통할 만한 수준”이라며 “국산 천일염은 한식 세계화에 참봉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도 “생산에서 가공 시설까지 원스톱으로 갖추고 있는데다 국내 최대 식품회사의 판매망을 이용하는 만큼 어민들 입장에서도 수입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DJ 자서전 이달말 출간

생애·비화 등 담겨

고(故) 김대중(1924~2009년) 전 대통령의 자서전이 이달말 출간될 예정이다. 출간 시기는 ‘내 자서전은 사후에 출판하도록 하라’는 유지에 따라 서거 1주기를 앞둔 시점으로 정해졌다.

경제론, 에세이 등 다양한 책을 저술한 김 전 대통령이 자신의 생애를 정리한 가장 최근의 책은 1992년 14대 대선에서 패배후 영국에 머물며 쓴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김영사 펴냄)다.

새로 나온 자서전은 6·15 남북정상회담 비화 등 대통령 재임 시 이야기는 물론 퇴임 후까지 본인의 전 생애를 정리한 내용이다.

자서전 형식을 따고 있지만 원고는 김택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집필했다. 그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총 41회에 걸쳐 100시간 가까운 구술을 받고 여기에 김 전 대통령의 일기 등을 바탕으로 집필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출간 계약을 한 삼인(대표 신길순)측은 이달 26일 발간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책 제목은 ‘김대중 자서전’으로 하고 상·하권으로 별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빛日만평

이 정도 새면 대책이 없겠다

- 김종두

광고접수안내

☎ 227-9600

FAX 227-9500

조직변경공고

유한회사 지명은 서거 2010년 07월 12일 사원총회에서 사원 전원의 찬성으로 주식회사 지명으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재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3일

유한회사 지명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 217-1 3층

대표이사 임태권

채권신고공고

본회사는 2010년 6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회사에 대하여 채권이있는 분은 2010년 09월 13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의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10년 7월 13일

아신건설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문안동 1069-4번지

그림사아파트타워 6층

대표청산인 김경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1306번지

수원 1단지 중흥에스-클래스 107동 801호

분할합병공고

2010년 7월 11일 대원이앤씨 주식회사(주)와 주식회사 수산전력(주)은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합병계 530조의 2 이하에서 규정한 회사분할 절차에 따라 (주)의 재산(영입)의 일부(전기공사실 부분)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괄을 전하여 그 분할된 부분(주)이 합병하고 (주)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분할대상 총액: 전기공사실 총액 00783호

2. 분할대상 예정일: 2010년 8월 15일

2010년 7월 13일

(주) 대원이앤씨 주식회사

충남 당진군 당진읍 수형리 484-7

대표이사 임창주

(주) 주식회사 수산전력

전남 함평군 함평읍 가림리 378-21, 1층

대표이사 김리옥

광천동신축상가임대

■ 건물 총 면적 : 1388㎡(420평)

■ 총별 건물 면적 : 413㎡(125평)

4층 : 148㎡(45평)

층 면적	권장업종	비고
1 181㎡ (55평)	약국, 미용실, 식육점, 소매점, 미트, 청과물	·제과점, 은행입점 확정 ·현재 70평 입점확정
2 171㎡ (52평)	치과	입점확정
2 241㎡ (73평)	학원, 의원, 레스토랑	
3 413㎡ (125평)	의원(병원), 체육관, 학원, 사무실	분할가능
4 148㎡ (45평)	사무실	입점확정

·광천동 대림 e편한세상(구 송원대학 정문) 신축상가로써 대림아파트 1096세대와 주변 기아자동차/주변세대 약 3,000세대가 활동하며 엘리베이터 설치와 양면도로 및 양쪽 출입가능

타공인증개사

임대 062)368-0789

문의 010-3602-4840

사원모집

당사는 에어컨 냉·난방기 도소매 전문업체로서 회사와 더불어 성장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모집부문	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경영·회계직	0명	경영·회계업무	경력자우대 (기혼자 가능)
근무처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745-18		

2.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 사진

3. 복지제도

4대보험, 상여금, 성과금

4. 접수처

-FAX : 062-374-9991

-TEL : 062-372-9991 ~5

(주)대우캐리어 광주총판

최고상권 건물매매

대단위 APT 단지 인접 동림지구 최신택 건물

·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 대지 632.9㎡, 건물 2,289.09㎡

· 가격 상당후결정

월산동 외곽도로변 지상 3층 건물매매

· 대지 374.9㎡

· 건물 299㎡

문의전화 011) 607-5629